

아시아챔스 잘 나가던 K리그, 중국·동남아 원정 동반 부진

전북·울산·인천 16강행 '불투명'

포항, J조 조별리그서 4전 전승... 16강 진출 확정

조별리그 5·6차전 각각 이달 말·내달 12~13일

아시아 최고 프로축구단을 가리는 2023~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 중인 K리그 구단들이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로 떠난 원정에서 잇달아 패하면서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ACL 조별리그가 전체 6경기 중 4차전까지 치러진 가운데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달성한 팀은 J조 1위 포항스틸러스 뿐이다. 포항은 지난 8일 우리와 레즈(일본)와 홈경기에서 2-1로 이기며 4전 전승을 거뒀다.

반면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팀

은 16강 진출이 불투명하다.

이번 대회 초반 K리그 팀들의 기세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 9월 일제히 열린 1차전에서 포항은 물론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인천유나이티드가 모두 승리하며 기본 좋게 출발했다.

이후 포항은 기세를 이어간 반면 나머지 팀들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그간 우위를 보였던 중국과 동남아 팀들에게까지 잇달아 털미를 잡히면서 16강 전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울산은 2차전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전 원정 경기에서 패한 뒤 3차전 홈 경기에서 조호르 다를 탁팀(말레이시아)

를 3-1로 잡았지만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원정에서 조호르에 1-2로 졌다.

전북은 2차전 태국 원정에서 방콕유나이티드(태국)에 2-3으로 졌고 3차전 홈경기에서 라이언시티(싱가포르)를 3-0으로 이겼지만 4차전 싱가포르 원정에서 라이언시티에 0-2로 무릎을 꿇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차전 카야 일로 일로(필리핀)를 4-0으로 대파했지만 3차전 홈경기에서 산둥 타이산(중국)에 0-2로 졌고 4차전 중국 원정에서도 산둥에 1-3으로 패했다.

이로써 울산과 전북, 인천은 아시아 동부 5개조 2위 팀들 중 상위 3개 팀에게만 주어지는 16강 진출권을 따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각 조 2위 팀들 중 승점 9점을 탄 산둥과 승점 7점인 멜버른시티(호주)가 앞서 있는 가운데 울산이 승점 6점으

로 가까스로 3위에 걸쳐 있다. 승점 6점인 전북은 골득실에서 1점 뒤져 4위에 올라 있다.

인천 역시 울산, 전북과 함께 승점 6점이지만 같은 조 2위인 산둥에 밀려 3위로 처지는 바람에 16강행이 불투명해졌다.

16강 진출 여부를 가릴 5차전과 6차전은 각각 이달 말과 다음달 12일과 13일에 열린다.

K리그팀들이 16강 토너먼트에 몇 팀이나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전 대회에서는 울산과 전남드래곤즈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전북과 대구가 16강에 올라 맞대결을 펼쳤다. 대구를 이기고 올라간 전북이 8강에서 빗셀 고베(일본)를 꺾고 4강에 진출했지만 이 대회 우승팀 우리와 레즈에 패해 결승행에 실패했다. /뉴스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임미경 영웅이 9일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소장품 기탁식 행사를 갖고 핸드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전라북도체육회 제공)

'우생순 신화' 핸드볼 영웅 임미경

"전북체육 역사 보존 노력 결실 맺길"

1988 서울올림픽 메달·유니폼 등 16점 전북체육회 전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체육을 빛낸 영웅이 자신이 수십 년간 고이 간직했던 체육 소장품을 전라북도 체육회에 기탁했다.

주인공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에서 여자 핸드볼 금메달을 획득한 임미경 전라북도 체육회 부회장이자이다.

9일 임미경 부회장은 서울올림픽 결승전 당시 착용했던 유니폼과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 국가대표 단복 등 약 16점의 소장품을 도 체육회에 전달했다.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을 전달해준 임미경 부회장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부인이 고향인 임미경 부회장은 초등학교때부터 핸드볼을 시작 선수 생활을 은퇴하기까지 핸드볼 종목의 위

상을 드셨었다. 특히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구기 사상 첫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동시에 전북 체육의 기개를 세계민방에 떨쳤다.

올림픽 결승전에서 한국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소련과 맞붙었다. 홈그라운드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련의 우승을 점쳤지만 5번의 동점과 2번의 역전을 펼치며 한국이 최종 스코어 2대 1로 승리,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한국의 우승 뒤에는 6골을 몰아넣은 임미경 부회장의 활약이 한몫했다.

기탁식 현장에서 임미경 부회장은 "감회가 새롭고 소장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며 "전북 체육의 역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도 체육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

글로벌 스포츠마케팅 선두 역할 '톡톡'

순창군, 'KETF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개최

일본 등 12세 이하 선수들 참가... 500여명 방문

순창군이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인 2023 KETF 국제 주니어(U-12) 테니스 대회를 개최해 전라북도 내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의 선두 주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 온 만 12세 이하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



회로, 남·여 단식, 남·여 복식 경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회는 새벽부, 10세부, 12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40여명의 국외 선

수를 포함해 500여명의 선수단이 순창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에 오시는 외국인 선수단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순창군은 외국인들이 경기할 수 있는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민선 8기를 맞아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으며, 매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국가대표팀들과의 스포츠교류 협약을 체결해 중목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순창형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결과보다는 과정 많은 것 얻게 돼"

우석대 특수교육과 한준서

장애인체전 수영 금1·은2



우석대학교 한준서(특수교육과 3년) 학생이 3일부터 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1개와 은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준서(광주) 학생은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S4(선수부) 결승에서 송두용(대구) 선수를 6.5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남자 자유형 100m S4(선수부)와 자유형 50m S4(선수부)에서도 각각 은메달을 수상했다.

한준서 학생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됐다"면서 "스피드 훈련과 체력 보강을 통해 짧은 거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이예다나 화교장은 "학과 내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한준서 학생은 매사 모범적이고 근성이 아주 강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태권도재단 등, 겨울 대비 태권도원 시설 합동점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대표 서필환)는, 안전한 동계 태권도원 운영을 위해 화재 및 동파 예방 등 시설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과 서필환 대표, 시설 담당자 등

이 참가했다. 태권도원 T1경기장 국립태권도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옥외 소화기를 비롯한 야외 시설물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동파예방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상시 초기 조치가 가능한 상태 유지 등을 위해 진행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겨울철에도 태권도원을 찾는 관광객과 전지훈련 선수단 등 방문객들을 위해 철저한 안전 점검은 필수"라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임원과 담당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조치하는 등 안전한 태권도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군산시민의 행복 군산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군산시의회